

京郷新聞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11호
 전화: 361-1111 (주선)
 361-1112 (편집)
 361-1113 (영업)
 361-1114 (광고)
 361-1115 (발행)
 361-1116 (인쇄)
 361-1117 (배달)
 361-1118 (판매)
 361-1119 (관리)
 361-1120 (사무)



| 구분 | 1980년 5월 26일 |
|------|--------------|
| 제1면 | 13면 |
| 제2면 | 14면 |
| 제3면 | 15면 |
| 제4면 | 16면 |
| 제5면 | 17면 |
| 제6면 | 18면 |
| 제7면 | 19면 |
| 제8면 | 20면 |
| 제9면 | 21면 |
| 제10면 | 22면 |
| 제11면 | 23면 |
| 제12면 | 24면 |
| 제13면 | 25면 |
| 제14면 | 26면 |
| 제15면 | 27면 |
| 제16면 | 28면 |
| 제17면 | 29면 |
| 제18면 | 30면 |
| 제19면 | 31면 |
| 제20면 | 32면 |

對決 아닌對話로事態 해결 청소년 銃器반환...治安協力을 시민들 냉정·理性 早速 되찾길

【서울 25일 특파원 특보】 서울에서 발생한 청소년들의 무장 반란 사태가 대화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무기를 반납하고, 시민들과 협력하여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서울시청에서는 청소년들의 무장 반란 사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들은 청소년들이 무기를 반납하고, 시민들과 협력하여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人命被害極小化 忍耐自制로事態收拾에 最善

【서울 25일 특파원 특보】 서울에서 발생한 청소년들의 무장 반란 사태에 대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인내와自制를 지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내와自制를 지키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청소년들의 무장 반란 사태에 대해 인내와自制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에서 발생한 청소년들의 무장 반란 사태에 대한 보도 사진.

光州事態 계속 緊張

過激亂動者回收武器·탄약 탈취
強硬투쟁선동...殺伐분위기 팽배

【서울 25일 특파원 특보】 광주에서 발생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과격하고 불안정한 행동자들이 무기와 탄약을 탈취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과격하고 불안정한 행동자들이 무기와 탄약을 탈취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北傀對南策動중지하라

李文公 경고 暴力革命선동은 正面挑戰

【서울 25일 특파원 특보】 북한傀對南策動을 중지하라.李文公은暴力革命선동을正面挑戰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傀對南策動을 중지하라.李文公은暴力革命선동을正面挑戰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李文公의 사진.

光州제외 平穩 회복

한대 17개 지의 擴散... 21일부터 惡化
木浦 25일부터 治安·행정機能 찾아

【서울 25일 특파원 특보】 광주제외의 상황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 한대 17개 지의 확산이 21일부터 악화되었지만, 25일부터는治安과 행정 기능을 찾아오는 추세이다.

광주제외의 상황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 한대 17개 지의 확산이 21일부터 악화되었지만, 25일부터는治安과 행정 기능을 찾아오는 추세이다.

【서울 25일 특파원 특보】 서울에서 발생한 청소년들의 무장 반란 사태에 대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인내와自制를 지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내와自制를 지키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청소년들의 무장 반란 사태에 대해 인내와自制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편한 캔으로 즐기세요.

새로운 코카·콜라, 환타, 킨사이다 캔은

- ① 운반과 보관이 아주 편리합니다.
- ②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 ③ 쉽게 냉각시켜 마실 수 있습니다.
- ④ 마시고 난 빈 캔을 되돌려 주는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멋지고 간편한 캔으로 코카·콜라, 환타, 킨사이다를 즐기세요.

* 빈 캔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다치지 않습니다.